

산통과 폰지

산통의 오리진은 중국 산둥에서 생산하는 작잠사(柞蚕糸)를 사용한 평직의 견직물이다. 작잠사를 사용한 것으로 폰지가 있다. 이러한 폰지와의 차이는 산통이 위사에 슬러브와 같은 매듭이 있는 실을 사용하는데 있다. 그러면 매듭사가 들어 있는 폰지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산통은 폰지보다도 부드럽고 폰지는 하리가 강하여 딱딱하다. 작잠사는 야잠의 누에고치를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이다. 작잠이라고 하는 누에는 보통의 견의 원료(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누에와는 다른 종류로써 산과 들에 서식한다. 견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누에(가잠)의 누에고치를 원료로 하고 있다. 이것을 가잠견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산통은 경사에 생사(가잠견), 위사에 옥사(玉絲)를 사용하고 있다. 옥사라 함은 2마리의 누에가 만든 하나의 누에고치에서 취한 매듭이 있는 생사를 말한다. 옥사는 매듭사라고도 하고 굵은 곳과 가는 곳이 더불어 슬러브 같은 것이 있다. 따라서 천의 면에는 위사 이랑이 나타나고 취미가 있는 표정을 살리고 있다. 산통은 둔한 광택을 가지고 있어 내추럴한 감이 있고 바탕이 확실한 옷감이다. 안감으로써는 홈스펀이나 트위드 등의 겹감에 대응하여 사용되고 있다. 폰지는 견주(絹紬)라고도 부른다. 폰지는 모방적하여 만든 작잠사를 수직으로 짠 평직이 오리진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감을 모방한 것이 거의 이다. 폰지는 타샤실크의 일종으로 중국 타샤라고도 한다. 인도 타샤라고 하면 인도산의 야잠견을 사용한 것이다. 야잠견은 대부분 혼방사로써 사용된다. 견방사 옷감에는 련견한 옷감에는 없는 후쿠라미와 따뜻함이 있다. 색상은 얇은 베이지로써 련견의 백색은 아니다. 련견의 정교하고 치밀함·세련됨과는 반대로 소박하다. 이것을 내추럴감이 있다고 애호하기도 하고 에콜로지컬한 생활신조의 구체적 명품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가치관은 다양하다. (야말화지(野末和志))

* 폰지(견주, 繭紬, pongee) : 작잠사(맷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를 사용하여 짠 얇은 견직물. 폰지(pongee), 또는 산동주(山東紬)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사에 작잠사, 위사에 견사를 사용한 것이 많다. 중국의 산둥성[山東省]이 원산지인데,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도 많이 생산된 작잠사 특유의 옅은 황색의 자연색을 띠고 있으며, 견고하기 때문에 이부자리·양산 또는 여름철 양복감으로 사용된다.